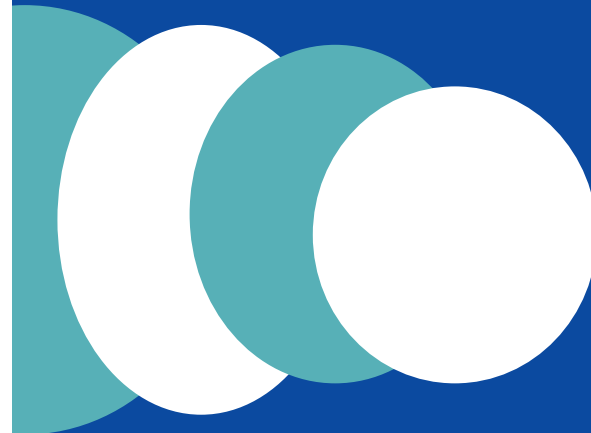


너와 나 함께 그리는, <바탕>

정책자료집



정후보, 문인 21

박규현



2021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입학

제13대 문화인류학과 학생회 꿈캔버스국 부국장

제13대 문화인류학과 학생회 [인간미] 과방 인테리어 TFT 팀장

제13대 문화인류학과 학생회 [인간미] 문플 플러스 TFT 팀원

2021 문화인류학과 필드워크 추진위원

2021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입학

제13대 문화인류학과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인간미] 선본원

제13대 문화인류학과 학생회 [인간미] 문인쉼터국원

2021 문화인류학과 학과소개 UCC 제작팀원

2021 문화인류학과 필드워크 추진위원

부후보, 문인 21

이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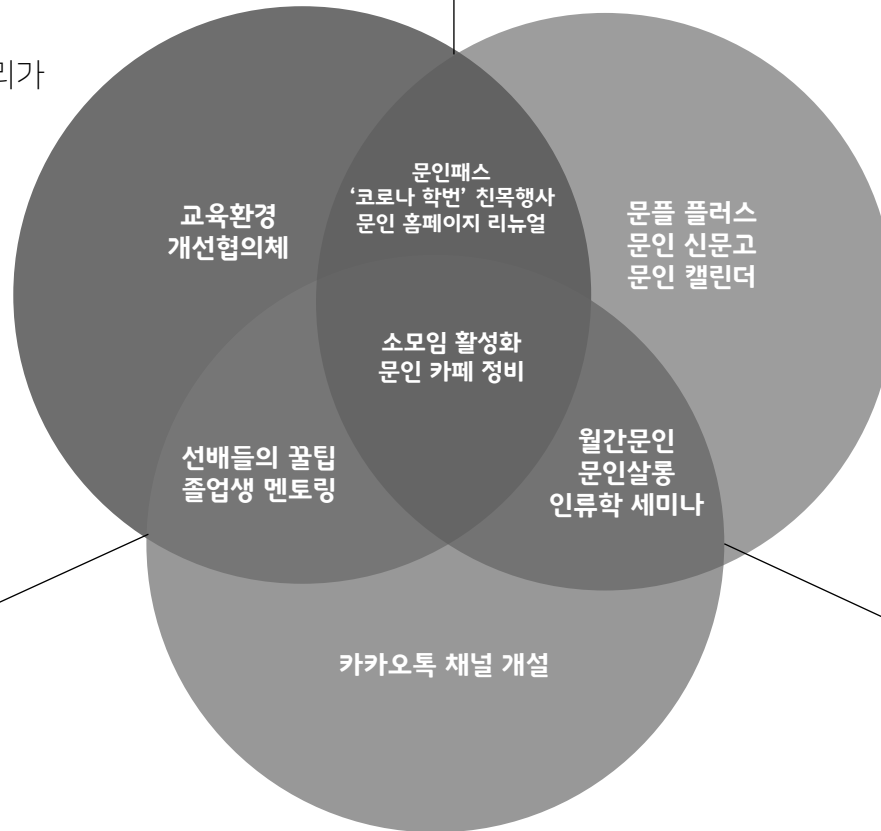


기조소개

1. 변화를 대비하고 유연하게 발 맞추겠습니다.

: '변화에 대비하고 유연하게 발맞추는 학생회'

코로나,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맞닥뜨린 대학 생활의 현주소입니다. 문화인류학과와 내년이 어떠할지, 어떻게 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탕>은 정책을 준비하면서부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상황을 탓하며 손을 놓는 대신 그에 맞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임기 중 대면 강의를 재개하여도 대면 행사에 있어 학과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3. 행사의 내실을 다지고 대학생활의 바탕이 되겠습니다.

: '견고한 정책, 단단한 문화인류학과'

비대면 대학생활은 학생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정책과 행사들이 신설되었습니다. <바탕>은 학생회 활동의 핵심만을 추리고 대학생활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생회 행사와 문화인류학과와의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하며 그것이 일시적인 행사를 넘어 문인다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보통의 대학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대화의 장을 만들고 피드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문인공동체'

우리 모두는 같은 문화인류학과와 학생이지만, 존중받아야 할 저마다의 의견과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탕>은 다양한 의견이 함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인류학과 공동체의 주인공이 문인 학우 여러분임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바탕>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탕> 정책 일람

친목/행사

소모임 활성화

‘코로나 학번’
친목행사

문인살롱

월간문인

학술/학과

선배들의 꿀팁

졸업생 멘토링

인류학 세미나

문플 플러스

교육환경개선협의체

소통/피드백

카카오톡 채널 개설

문화인류학과
카페 정비

문인 홈페이지
리뉴얼

생활/권리

문인패스

문인 신문고

문인 캘린더



친목

&

행사

1.소모임 활성화

2.코로나 학번 친목행사

3.문인살롱

4.월간문인



친목/행사

소모임 활성화 (개선)

WHY?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소모임을 조직한 후 학생회에 신고해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대학생활과 함께 새로운 소모임의 조직이나 활동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모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모인날, 모든순간”이라는 이름으로 학생회가 소모임 희망자의 관심 분야를 모아 음식 소모임과 여행 소모임을 매칭하였지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의 자율적 모임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HOW?

2022년 1학기 시작 이전, 전체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소모임 활동 주제와 개설 의사를 조사하겠습니다. 기존 소모임도 활동 지속 의사가 있는지 파악해 2022 1학기 시작과 함께 문화인류학과 네이버 카페, 신입생 OT 등의 자리에서 소모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모임 모집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겠습니다. 모든 소모임은 활동 목표와 계획을 담은 신고서를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학생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회가 운영하는 SNS에 소모임 활동에 관한 홍보와 중간보고 등을 게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모임 운영을 장려하겠습니다.

‘코로나 학번’ 친목행사 (신설)

WHY?

코로나19 이전의 새내기들은 선배와의 밥약과 같은 친목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대학생활로 인해 선후배 사이의 밥약을 잡거나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2학번 신입생과의 밥약에서 선배의 입장이 될 20, 21학번에게는 더욱 이러한 문제가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탕>은 20, 21학번과 22학번, 일명 코로나 학번의 교류행사를 통해 학번 간 교류와 친목을 돕고 대학생활을 알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HOW?

20학번, 21학번과 22학번 학우들의 신청을 받아 5명 정도의 조를 구성할 것입니다. 같은 조의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학우들이 선호하는 일시를 반영하여 조를 구성하겠습니다. 행사 며칠 전부터 조별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자기소개와 간단한 미션을 진행해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편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대면 모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원들과 만나 인생네컷 챌린지, 도서 교환 등의 활동을 통해 친목을 쌓을 것이고 술자리 문화가 낯선 학우들을 위해 낯알콜 테이블도 배정할 예정입니다. 대면 모임이 불가능하다면, 친목행사는 온택트 모임 앱에서 진행됩니다. 마피아 게임, 방탈출, 밸런스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여 비대면 모임의 아쉬움을 덜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조나 개인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친목/행사

문인 살롱 (개선)

WHY?

<바탕>은 미니 토크콘서트 '문인살롱'을 통해 문인 학우들이 지속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인살롱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새로운 체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문인 학우들이 일상적인 담화를 넘어 서로의 내밀한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OW?

문인살롱은

행사 기간 동안 2주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한 회차당 2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하며 문인살롱 운영위원들이 진행을 맡을 것입니다. 운영위원이 문인살롱의 테마와 순서를 안내하면, 문인살롱 참여자들은 해당 회차의 주제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진행 상황과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너무 시끄럽지 않은 식당, 학교 건물 혹은 줌(zoom)에서 문인살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문인 (유지)

WHY?

'월간문인'은 문인 학우들이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글을 기고받는 온/오프라인 월간지입니다. <바탕>은 다른 학우의 생각과 감정, 배움이 녹아든 글을 읽어 보며 그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월간문인'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HOW?

다른 학우들과 나누고 싶은 글을 자유롭게 기고받아 매월 월간문인 전문을 네이버 포스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일기, 보고서, 과제물, 그림 등 학우들과 공유하는 원고의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포스트는 매월 업로드될 것이고 2021년의 여름방학 특별호처럼 다양한 테마로 기고받을 수 있습니다. 임기 말에는 학우들의 글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도록 매월 발간된 월간문인을 모아 오프라인지로 발간할 것입니다.

학술

&

학과

1.선배들의 꿀팁

2.졸업생 멘토링

3.인류학 세미나

4.문플 플러스

5.교육환경개선협의체



선배들의 꿀팁 (유지)

WHY?

계속되는 비대면 대학생활로, 동기들 간의 네트워크는 물론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뿐 아니라 학교와 수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져,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바탕>은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선배들의 여러 가지 팁을 후배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HOW?

질문자는 21, 22학번의 학우들이고, 답변자는 비대면 대학생활과 대면 학교생활에 모두 대답해주실 수 있는 20학번 이상의 선배님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구글 폼으로 희망자 신청과 질문을 받습니다. 수합한 질문을 학생회 측에서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고, 답변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답니다. 이 행사는 연세대학교의 대면 강의가 재개될 경우 간소화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졸업생 멘토링 (개선)

WHY?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예술, 마케팅, 국제협력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탕>은 졸업생 멘토링을 통해 학우들이 문인 선배들과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하였고 어떻게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였는지, 문화인류학을 취업과 창업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우들끼리 진로에 관한 고민을 나누며 문화인류학 커뮤니티를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HOW?

우선 문인 재학생 카카오톡 채팅방과 문인 총동문회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사용해 졸업생 강연자의 수요를 조사한 후 구글 폼을 통해 재학생들의 질문을 모아 사전 질문지를 만들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강의실이나 모임 공간을 빌려 졸업생의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후 강연 녹화본을 문인 유튜브 채널과 개편될 학과 홈페이지에 올려 최대한 많은 학우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에서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졸업생의 강연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역시 강연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하여 문인 공식 유튜브 채널과 학과 홈페이지에 올려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재학생들도 강연을 들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인류학 세미나 (신설)

WHY?

코로나 19는 학술적 탐구와 교류 또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탕>은 인류학적 감수성을 토대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인류학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적 소모임이나 학회가 조직될 경우, 인류학 세미나에서 활동 성과와 논의를 공유해 학우들과 인류학적 시각을 나눌 수 있게 하겠습니다.

HOW?

탐구 결과를 나눌 개인 혹은 학술적 소모임이 학생회와 함께 인류학 세미나를 기획합니다. 각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제를 받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대주제에 맞춰 여러 학우와 함께 연구하는 필드워크, 소소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문인살롱과는 다른 결의 행사가 되도록, 학우들의 수요를 묻고 이에 맞는 행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인류학 세미나의 과정과 결과는 카드뉴스로 정리하여 네이버 포스트와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문플 플러스 (유지)

WHY?

문화인류학과에서는 한 학기 동안 10개 정도의 전공 강의를 열리고, 이번 학기에는 13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수 과인 문화인류학과 특성상 전공 강의에 대한 강의평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탕>은 전공 강의를 수강한 선배들의 후기를 모아서 문화인류학과 학우들의 전공 강의 준비와 이해를 돕고 전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HOW?

문화인류학과 여러 전공 강의를 과목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협업 프로그램인 '노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년 1학기까지 정리된 전공 강의 데이터에 2021년 2학기, 2022학년 1학기의 정보를 덧붙이겠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전공강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분류하여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협의체 (유지)

WHY?

문화인류학과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우리 과의 운영방식과 교육환경에 관한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바탕>은 문화인류학과 학우들과 교수님들 혹은 교직원들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바탕>은 학우들의 교육권 보장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HOW?

교육환경개선협의체TFT(Task Force Team)를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모집해 학우들의 건의 사항을 구글폼을 통해 수합·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수합된 건의 사항을 토대로 TFT는 이상국 학과장 교수님과 학과의 교육환경을 주제로 교육환경개선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교육환경개선협의에서는 필드워크 관련 설문조사, 교육환경 개선 관련 설문조사, 전공자 보호 정원 관련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교육환경개선협의를 진행되었고 올해도 학우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은 학생회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에 생각을 더할수록,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이라고 말하는 건 서로의 다름을 담지 못한, '우리'로 뭉뚱그리는 답인 듯합니다. 문화인류학과와 일원으로 만난 '우리'는 저마다의 의견과 삶의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는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의견은 적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우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공연히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도, 문화인류학과와 대표자라는 이름으로 문인의 누군가와 반대되는 정치적·사회적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바탕>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생회가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더라도, 들으려는 노력조차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학우들을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작은 목소리도 가닿을 수 있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 내용은 입후보 등록 서류 중
정후보 소견서를 일부 발췌했습니다.



소통

&

피드백

1. 학생회 카카오톡 채널 개설

2. 문화인류학과 카페 정비

3. 문인 홈페이지 리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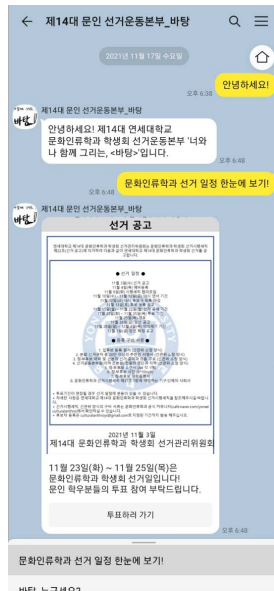
학생회 카카오톡 채널 개설 (신설)

WHY?

현재 문화인류학과 학생회의 공지사항은 학교 전체 공지, 학과 공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공지 등과 함께 여러 공지방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잦은 공지는 물론 공지내용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피로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바탕>은 '문화인류학과 학생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함으로써 우리 과와학생회의 공지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은 키우고 정보를 찾는 불편함은 줄이고자 합니다.

HOW?

카카오톡 채널의 메뉴에 주요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과 문인 캘린더를 배치해 학생회 관련 공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학생회 인스타그램에올리는 피드를 카카오톡 채널에도 공유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학우들의 행사 참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 피드백을 문인 신문고가 아닌 카카오톡 채널 채팅을 통해 받겠습니다.



문화인류학과 카페 정비 (개선)

WHY?

문화인류학과 카페는 사이월드 클럽을 계승한 우리 과의 공식적인 커뮤니티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카라카 티켓팅, 필드워크 조 신청 시에만 일시적으로 활용하거나 채용 공고 및 학생회 안건지의 업로드만 이루어지며 비대면 대학생활에서 공식적인 커뮤니티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HOW?

사이월드 클럽 때부터 있던 카페 게시판과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게시판의 통합과 정리를 통해 카페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월 운영하는 N문N답 게시판처럼, '학기 초 밥약 상대 찾기, 시험 기간 한시적 스터디 모집, 친목 행사 후기' 등 시기에 맞는 게시판을 개설해 활용할 것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접근성 역시 고려해 게시판 배치를 개선하겠습니다.

문인 홈페이지 리뉴얼 TFT (신설)

WHY?

2008년 문화인류학과 설립 이후, 문인 홈페이지는 전체적인 디자인과 구성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대표 사진 역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탕>은 학부생을 대표하여 교수님, 대학원 조교님과 함께 TFT를 조직해 홈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학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학생뿐 아니라 문화인류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문화인류학과 전과·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HOW?

교수님, 대학원 조교님과 학부생이 함께 홈페이지 리뉴얼 TFT를 구성해,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중요한 공지사항 및 자료를 옮기는 등의 활동을 12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의 배너와 퀵 메뉴에 공지사항·홍보자료 등을 게시하면, 학우들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문인 유튜브 TFT에서 제작할 문화인류학과 소개 영상, 일상 브이로그 등을 문화인류학과 홈페이지에도 공유해 학부생의 목소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의 학교생활이 올해의 것과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문인 학우들이 최대한 학교생활을 즐기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후보 박규현, 선본원들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일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어 행사의 진행 방식을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기획하였습니다. 문인 학우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학교생활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싶습니다.

대학교에 처음 와 모르는 것이 많을 새내기, 송도 생활을 겪어보지 못한 20/21학번, 비대면 학기로 공백을 느낄 문인 선배들 모두가 문화인류학과와 인프라를 누리고 대학 생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내용은 입후보 등록 서류 중 정후 후보 소견서를 일부 발췌했습니다.

생활

&

권리

1. 문인패스

2. 문인 신문고

3. 문인 캘린더



문인패스 (신설)

WHY?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문인 학우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대학생활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바탕>은 문인 공동체를 체감하고 소속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시험 기간마다 진행해 온 간식 행사와 더불어 여러 대학생활 지원 방안을 모아 '문인패스'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HOW?

문인패스에 포함될 만한 지원 방안으로 선배와의 밥약 매칭, 전공 수업 교재비 지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학생회가 일방적으로 지원 방안을 정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변수들이 고려될 것이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학과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겠습니다. 비대면 대학생활이 이어질 경우, 캠퍼스 공간과의 단절을 해소하고 학생증 수령, 학과 행사 참여 등을 위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인 신문고 (개선)

WHY?

문화인류학과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부당한 차별,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와 불만을 신고하기 위한 창구가 필요합니다. 기존 문인 신문고는 행사 피드백 창구로도 기능했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사 피드백은 카카오톡 채널로 분리하겠습니다. 학우들의 피해 고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문인 신문고를 통해 건강한 문인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HOW?

문인 신문고는 사건·사고 고발창구의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기존 문인 신문고의 고발 창구 운영 방법을 유지하여 '회장단과 문인 신문고 담당 집행부원', 두 개의 개별 구글폼 링크를 통해 원하는 접수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고, 문인 신문고 이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세전문기관(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연세대학교 심리상담센터, 연세대학교 인권센터)의 연락처도 병기하겠습니다. 고발 내용의 처리 과정은 투명하게 공지하되 개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와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 고발인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문인 캘린더 (유지)

WHY?

비대면 대학생활이 계속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학사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대면 대학생활이 재개되면 새롭게 추가될 여러 행사와 학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문인 캘린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바탕>은 학교, 학과의 다양한 일정을 월별로 정리한 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하여 문화인류학과 학우들의 학교생활을 돕겠습니다.

HOW?

학교와 학과의 일정을 월별로 정리해서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겠습니다. 문인 캘린더에는 수강 신청이나 필드워크 등의 중요한 공지 사항과 시험 기간 간식 행사 등 학생회가 진행하는 행사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제작 완료된 문인 캘린더는 학생회 SNS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에 매달 1일 게시, 배포하겠습니다.

본문 작성

김기태, 김현서, 박동재, 이승범

본문 편집

박규현, 이서연, 황인선

디자인

이수연



선거일

11/23(화) ~ 11/25(목)

제14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학생회
선거 투표 기간입니다!

대학생활의 바탕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정후보, 문인 21
박규현



부후보, 문인 21
이서연



<바탕>은 2022년의 문화인류학과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비대면 강의로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대학생활을 위해,
기존 행사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학생회는 많이 묻고 많이 듣겠습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내년을 함께 준비할,
대학생활의 '바탕'이 되겠습니다.